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8 월 1 주차

- 美 6월 PCE 상승과 2/4분기 GDP 부진, 미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 요인으로 해석
- 테슬라, 중국 법인 분리와 스페이스X 합병설에 리스크 부각, 이퀴닉스, AI 수요 기반 실적 호조로 높은 밸류에이션 증명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미국주식] 테슬라, [글로벌리츠] 이퀴닉스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운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 숨 고르기 속 코스닥의 약진, 과열 수급은 진정

- 반도체 급등 후 숨 고르기, 레버리지 수급 쏠림과 변동성 우려 완화
- TACO 안도감에 국제 유가 하락, 수출 호조는 실적 모멘텀 강화
- 반도체 조정 속 코스닥 강세, 양 시장 차별화 뚜렷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현대제철: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

- 2Q226 OP 추정(1,035억)/컨센(758억) 모두 하회
- 2분기 판매량과 판가 인상에도 원재료비 가격 증가와 환율이 부정적
- 하반기 판가 인상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

강민아, Minah.kang@daishin.com

[2Q26 Review] 한섬: 재고 소진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 (목표주가 -25% 하향)

- 2분기 백화점 채널 중심의 매출 증가
- 22-23년 런칭한 신규 브랜드 재고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
- 주식 시장 변동성 진정, 연말 성과급 효과 등 고려하면 매수 전략 유효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2Q26 Review] 효성중공업: 주가만 후퇴. 펀더멘털은 전진 앞으로!

- 목표주가 4,200,000원으로 하향. 그러나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 중
- 1) Quanta와 미국 전력기기 협력 확장, 2) AI DC 전용요금제 도입 효과
- '26년 수주 가이드스 12조원, 매출 성장률 +25% 등으로 상향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대신증권 신성장산업] 8월 Top-Picks: 파마리서치, 브이엠, 프로텍

- [파마리서치] 7월에도 이어진 수출의 힘
- [브이엠] 이렇게 저렴할 이유가 없는 주식
- [프로텍]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 진입

박장욱, 한송협, 김아영, 김진형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8월 1주차

- 美 6월 PCE 상승과 2/4분기 GDP 부진, 미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 요인으로 해석
- 테슬라, 중국 법인 분리와 스페이스X 합병설에 리스크 부각. 이퀴닉스 AI 수요 기반 실적 호조로 높은 밸류 증명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테슬라, 이퀴닉스

[글로벌전략] 美 6월 PCE + 美 2/4분기 GDP 조합, 미국 증시 기술적 반등 건인 요인

7.30일 美 6월 PCE 결과는 전년동월대비(이하) 3.7% 상승. 실질정책금리가 3개월 만에 (+)로 전환. 증시 방향성 역시 상승 전환. 30일 美 2/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이하)로 1.5% 증가, 1/4분기 성장률(2.1%)보다 둔화. 성장률 부진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예측 확률을 낮출 것. 다만, 현 미국 증시는 7.23일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이후, 고점에서 상승 빼기형 패턴 완성과 함께 증시 방향성 하락 전환. 6월 PCE와 2/4분기 GDP 결과 조합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반등으로 축소해석 필요.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유니트리, IPO 추진 발표, 중국 증시 상장 추진

유니트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7월 30일, IPO 절차 착수를 발표했고 공모 규모는 약 4045만주. 8월 10일, 온-오프라인 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일은 아직 미정. 유니트리의 IPO 추진 발표는 미국의 해외 생산 로봇 수입 규제에 맞서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한 기술 발전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유니트리의 강점은 '수익성'. 적자를 내는 로봇 기업 사이에서 지난해 매출 17억 위안(약 3,593억원), 순이익 5억 9,100만위안(약 1,249억원)을 기록.

[미국주식] 테슬라(TSLA): [테슬라] 중국법인 매각 · 스페이스X 합병설에 1.2백만 대 서스펜션 조사 계약재 — 극단적 밸류에이션에 쌓이는 리스크

월스트리트저널, 중국법인 분리 후 스페이스X 합병 검토설 보도, 머스크는 강하게 부인. 중국 매출은 2분기 47억달러로 전체의 17%, 상하이시는 최대 생산기지로 분리 타격 우려. 영업이익률 1.4%까지 얹어진 가운데 주가는 예상 이익 180배로 밸류 부담. 120만대 서스펜션 예비평가, 정식 리콜 격상 여부와 중국 분리 계획 구체화가 관건.

[글로벌리츠] 이퀴닉스(EQX): AI 수요 기반 성장세 지속

26.2/4분기 매출 26.3억달러(+16% YoY), 주당 AFFO 11.78달러(+19% YoY)으로 실적호조. 연간 수주액 4.24억달러(+23% YoY) 기록하였고 2026년 공급의 30% 선판매를 달성하여 중장기 실적 가시성 강화. 상호연결 9.7천건, 캐비닛 계약 4.2천개로 사상최대치를 달성 → 고객이 늘어날수록 연결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플랫폼 구조로 가격 결정력 강화. 12MF P/FFO 31배로 프리미엄에 거래 중이나, 건조한 실적성장과 수주확대가 이어지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

반도체 숨 고르기 속

코스닥의 약진, 과열 수급은 진정

- 반도체 급등 후 숨 고르기, 레버리지 수급 쓸림과 변동성 우려 완화
- TACO 안도감에 국제 유가 하락, 수출 호조는 실적 모멘텀 강화
- 반도체 조정 속 코스닥 강세, 양 시장 차별화 뚜렷

반도체 급등 후 숨 고르기, 레버리지 수급 쓸림과 변동성 우려 완화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관련 디레버리징이 막바지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급등. 단 하루만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금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되돌림 장세 전개

반도체 Top2의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급감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 7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거래대금은 7월 31일 1.9조원, 8월 3일 0.8조원을 기록. 5월 27일 출시 이후 7월 30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7.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거래로 수급 쓸림이 완화되어 변동성 확대 요인이 진정되고 있음을 확인

신용유자 잔고가 7월 31일 기준 전일 대비 -3.1조원 감소한 점도 주목. 이는 디레버리징 막바지 인식을 뒷받침하는 요인. 신용 포지션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추가 반대매매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기계적 매도 압력이 축소된 점이 긍정적

TACO 안도감에 국제 유가 하락, 수출 호조는 실적 모멘텀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다고 발표.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큰 틀이 마련됐다고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TACO로 WTI 선물은 80달러선을 하회했고,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4.25%, 4.70% 아래로 하락하며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편 한국의 7월 수출은 989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8.8% 증가한 41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호조를 주도했고, 컴퓨터 수출도 +404% 늘어난 48억달러로 집계되며 견조한 흐름 지속. 그외 무선통신(+51%), 선박(+47%), 화장품(+38%) 상승하며 실적 모멘텀 강화

반도체 조정 속 코스닥 강세, 양 시장 차별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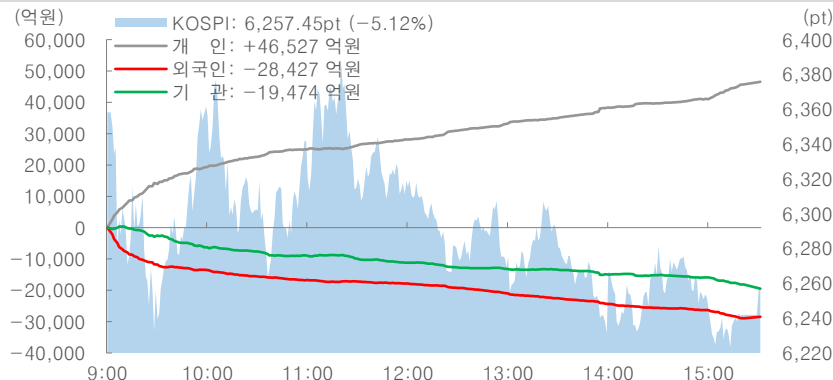
반도체 업종 급등 이후 되돌림 소화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로봇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 전개하며 양 시장 간 차별화 양상 뚜렷

코스피 반도체: 삼성전자(-8.8%), SK하이닉스(-8.8%), 한미반도체(-5.6%)

코스닥 제약/바이오: 펩트론(+30.0%), 리가켄바이오(+9.0%)

코스닥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5.9%), 로보티즈(+17.3%), 에스피지(+14.9%)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제철 (004020)

강민아
minah.ka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4,6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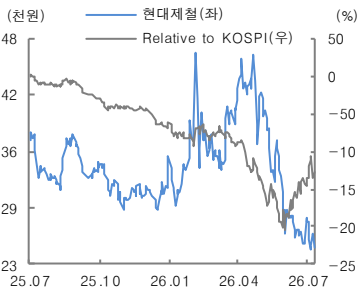
24,800

(26.08.03)

철강금속업종

KOSPI	6257.45
시가총액	3,30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66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6,500원 / 24,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50억원
외국인지분율	16.96%
주요주주	기아 외 6 인 35.96% 국민연금공단 8.8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2	-41.7	-18.8	-27.5
상대수익률	13.5	-38.5	-31.4	-63.9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

- 2Q26 OP 추정(1,035억)/컨센(758억) 모두 하회
- 2분기 판매량과 판가 인상에도 원재료비 가격 증가와 환율이 부정적
- 하반기 판가 인상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600원으로 유지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의견 BUY, TP 44,600원 유지. 현재 주가는 P/B 0.1배 후 반대로 역사적 하단 영역에 위치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 다만,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ROE 개선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판단.

2Q26 매출 6.1조(YoY +3%, 이하 YoY), OP 577억(-43%), OPM 0.9% 시현

OP 추정(1,035억)/컨센(758억) 모두 하회. **[별도 기준]** 매출 4.8조(+3.4%), OP 111억(흑자전환), OPM 0.2% 기록. 성수기 효과에 따른 판매량 증가(QoQ +3.7%)와 판매가격 인상(QoQ +4.3%)으로 스프레드는 개선되었으나 원료탄, 철스크랩 등 투입원가 상승과 환율의 부정적 효과로 이익 개선 폭 제한.

하반기 판가 인상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113억(QoQ +9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와 추석 연휴 영향으로 판매량 소폭 감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다만, 자동차 강판 등 실수요항 제품가격 인상과 원재료비의 가격 안정화에 따른 추가적인 스프레드 개선 기대. 중장기적으로 반덤핑(AD) 관세 효과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팹 증설 등의 신규 수요 확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5,946	5,740	6,107	6,107	2.7	6.4	6,146	6,086	6.1	-0.4
영업이익	102	16	58	58	-43.3	267.8	76	111	19.4	92.9
순이익	34	-41	6	6	-82.9	흑전	17	48	179.6	723.9

자료: 현대제철,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3,226	22,733	23,995	26,410	27,883
영업이익	159	219	351	951	1,208
세전순이익	-59	-43	152	748	1,014
총당기순이익	9	1	114	561	761
지배지분순이익	-12	-7	112	550	745
EPS	-87	-52	840	4,121	5,585
PER	NA	NA	50.1	10.2	7.5
BPS	141,768	145,158	145,628	149,380	154,598
PBR	0.1	0.2	0.2	0.2	0.2
ROE	-0.1	0.0	0.6	2.8	3.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제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섬 (02000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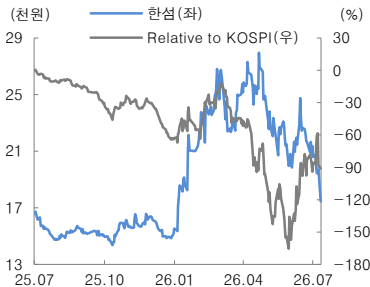
(26.08.03)

17,460

섬유패업종

KOSPI	6257.45
시가총액	37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7,950원 / 14,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4억원
외국인지분율	24.89%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42.31% 국민연금공단 10.0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8.6	-34.2	-3.8	11.1
상대수익률	5.2	-30.6	-18.7	-44.6



Result comment

재고 소진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

- 2분기 백화점 채널 중심의 매출 증가
- 22~23년 런칭한 신규 브랜드 재고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
- 주식 시장 변동성 진정, 연말 성과급 효과 등 고려하면 매수 전략 유효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 30,000원으로 하향(-25%)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30,000원(12개월 FWD 예상 P/E 8배)으로 하향(-25%). 목표주가 하향은 26~27년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것임

2분기 매출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었으나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상승했을 경우 나타나야 하는 추가 성장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이 아쉬움. 2~3분기가 비수기로 이익률이 낮고 이익 규모가 작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주식시장의 높아진 변동성으로 당장 3분기 내수 의류 소비 증가는 MSD%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주식 시장 변동성 완화, 성과급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전략 유효

2Q26 Review: 재고 소진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32억원(+7%, yoy), 46억원(+525%, yoy)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당사 및 시장 추정치 하회

백화점 채널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출액이 yoy 8.7% 성장(온라인 채널 성장률 2.3%)하였고 주력 브랜드에서 두 자리 수 성장률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 그러나 22~23년 신규 런칭한 수입 브랜드의 재고를 정리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yoy 0.9%p 하락. 2분기는 이익률이 낮은 비수기인데다 매출총이익률 하락 영향이 더해지며 영업이익이 다소 아쉬운 수준에 그침

(단위: 십억원 %)

구분	2Q25	1Q26	직전추정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38	410	365	363	7.4	-11.5	367	327	5.6	-9.9
영업이익	1	37	12	5	525.0	-87.4	12	5	104.4	10.0
순이익	2	27	11	3	347.4	-87.9	10	6	242.1	89.6

자료: 한섬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85	1,492	1,586	1,692	1,809
영업이익	63	52	98	102	109
세전순이익	57	56	102	108	115
총당기순이익	43	46	79	83	88
지배지분순이익	45	46	79	83	88
EPS	1,894	2,061	3,608	3,867	4,119
PER	7.8	7.8	6.4	6.0	5.6
BPS	59,656	64,033	68,859	73,004	76,407
PBR	0.2	0.2	0.3	0.2	0.2
ROE	3.2	3.3	5.4	5.4	5.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효성중공업 (29804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200,000

하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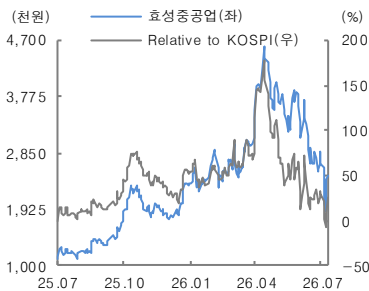
(26.08.03)

2,495,000

유틸리티업종

KOSPI	6257.45
시가총액	23,2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5%
자본금(보통주)	4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601,000원 / 1,115,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43억원
외국인지분율	27.06%
주요주주	효성 외 12 인 43.99% 국민연금공단 10.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4.9	-36.2	5.4	113.4
상대수익률	-2.9	-32.7	-10.9	6.4



* GCB: AIS용 가스차단기

* 6개 계통운영기관: PJM, SPP, NYISO, MISO, CAISO, ISO-NE (미국 전력수요의 53% 차지)

주가만 후퇴. 펀더멘털은 전진 앞으로!

- 목표주가 4,200,000원으로 하향. 그러나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 중
- 1) Quanta와 미국 전력기기 협력 확장, 2) AI DC 전용요금제 도입 효과
- '26년 수주 가이드스 12조원, 매출 성장률 +25% 등으로 상향

목표주가 4,200,000원으로 하향. 그러나 펀더멘털은 더욱 강화 중

목표주가는 4,200,000원으로 하향. 이는 금리 인상, 6개월 내 목표주가 현실화 등을 반영했기 때문. 오히려 2026년 및 중장기 실적, 수주 전망치를 상향함. 2026년 예상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7,33조원, 1.1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10% 이상 상향하며, 중공업 부문의 수주금액도 14.08조원으로 상향함. 수주금액 증가는 중장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짐. 다음 내용을 감안 시, 동사의 미국 전력기기 사업 업황의 호조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5년 11월 AEP와 Quanta Services는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전략 협약을 맺은 바 있음. AEP는 데이터센터 및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으로의 전력 공급 등을 위해 2026~30년 72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Quanta Services는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의 미국 제조능력 확장을 통해 전력기기를 공급할 예정임. 최근 동사는 Quanta Services와 미국 GCB 생산을 위한 JV를 설립하기로 했음. 동사는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를 동시 생산할 수 있어, 향후 GIS, 스테콤, 변압기 등으로 사업 협력이 확장될 수 있음

2026년 7월 현재 대형부하 전용 요금제가 미국 24개 주에서 승인되었고, 6개 주가 심의 중임. 또한 6월 FERC는 Show Cause를 통해 총 6개 계통운영기관에 대형부하 접속 규칙의 제정 절차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8월까지 답변을 받을 예정임. 승인 시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핵심 쟁점은 대형부하 고객의 전력망 연결 신청 시 예치금 및 담보금 부담, 고객접속설비의 원인자 부담 등임. 이 경우 1) 유틸리티는 자본투자비 부담 및 심사기간 축소, 가수요 배정 슬롯의 확정적 수요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115kV, 138kV, 230kV 이상 고압/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의 계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2) 고압/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공급 부족 등을 감안 시, 빠른 전력공급을 원하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에 대한 높은 가격 지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수주 및 실적 가이드스 상향. 4Q26 퀀타 JV 미국 GCB 생산 개시

2Q26 중공업 매출 1.7조원 중 미국향 비중은 38%, 수주(3.3조원) 비중 63%, 수주잔고(17.5조원) 비중은 57%임. 매출은 수주 트렌드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성장 지속 기대. 반덤핑 이슈로 지연된 국내 창원 공장의 초고압 변압기 미국 수출도 하반기부터 본격화 예상. 2026년 중공업 부문의 수주 가이드스는 8.45조원에서 12조원(+58% YoY)으로,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25%로, 영업이익률은 10%대 중후반에서 10%대 후반으로 상향. 초고압 변압기 이외 GIS, GCB 수주 증가, 리드타임이 짧은 GIS, GCB 매출 확대 등을 반영.

4Q26 가동 예정인 퀀타 JV항 725~800kV급 GCB 공급물량은 미반영이라 추가 상향 가능성 존재. 국내에서 GCB 관련 반제품을 생산하여 퀀타 JV에 공급, JV에서 GCB를 조립/생산하고,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에서 판매, 설치 등을 담당할 예정. 한국에서의 수출 물량을 포함해 2030년 미국 내 GCB 점유율 2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신 신성장산업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김진형 jinhyung.kim@daishin.com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파마리서치	Buy	620,000원
브이엠	Buy	120,000원
프로텍	Not Rated	Not Rated

8월 Top-Picks: 파마리서치, 브이엠, 프로텍

- [파마리서치] 7월에도 이어진 수출의 힘
- [브이엠] 이렇게 저렴할 이유가 없는 주식
- [프로텍]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 진입

[파마리서치] 7월에도 이어진 수출의 힘

2Q26 수출 호조로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전망

7월 강릉 수출액 1,460만달러로 2개월 연속 최고치

미국과 동남아 화장품 성장이 실적 눈높이 상향

[브이엠] 이렇게 저렴할 이유가 없는 주식

고객사의 CAPEX 지속 확대에 따른 강한 수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

1) 기존 장비 대비 High-End 영역을 커버하는 신규 장비의 출시와 2)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 동인이 될 신규 고객사 확보도 2H27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

[프로텍]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 진입

자회사 피엠티 턴어라운드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66.4% 개선 전망

반도체 패키징이 고성능화될수록 신규 장비 LCB가 부각될 수 있음

신규장비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고려 시, 관심 필요한 구간 위치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배)

	파마리서치		브이엠		프로텍	
	26F	27F	26F	27F	26F	27F
시가총액	3,865		1,685		521	
매출액	692	881	320	432	277	319
%yoy	29.1	27.3	121.7	35.1	75	87
영업이익	277	359	98	146	27.3	27.5
OPM(%)	40.0	40.7	30.5	33.7	63.2	16.3
순이익	226	285	82	119	59	67
ROE	28.7	28.4	31.9	31.9	15.8	15.6
PBR	4.8	3.7	6.5	4.5	1.3	1.1
PER	15.4	12.2	20.4	14.1	9.3	7.6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